

평창 진부전통시장 주차타워 내달 1일부터 유료화

✎ 우정연 기자 | ☎ 승인 2025.04.24 10:43



진부 전통시장 주차타워 [사진=평창군]

[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연 기자] 강원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오는 5월 1일부터 진부전통시장 주차타워를 유료화한다고 24일 밝혔다.

주차타워는 전통시장 방문객과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총사업비 94억 원을 들여 3층 4단, 주차대수 190면 규모로 지난해 12월 조성됐다.

요금은 입차 후 30분간 무료이고 이후 30분마다 500원이 부과되며 카드 결제 전용으로 운영된다.

하루 주차료는 4000원이고 월 정액권은 5만 원이다.

장애인과 국가유공자, 경형 자동차,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주차 요금의 50%가 감면된다.

최순철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“주차타워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료화에 나섰다”며 “주차장 이용 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

우정연 기자 wooj2705@naver.com